

[ 사회 ]

■과속·신호위반 과태료 체납 1천억원 넘어

7년간 876건, 4,898만원 안낸 사람도

응급구조단 구급차 3대, 6년간 1억원 넘게 밀려  
광주·전남경찰청 고액 체납자 차량 공매 추진

광주시 남구의 A응급구조단 소속의 한 구급차도 최근 6년간 704차례 무인카메라에 찍혔다. 과태료를 내지 않아 체납액만 5천150만원에 이른...

이처럼 체납 과태료에 대한 징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경찰이 24일 고액 과태료 체납 차량을 강제공매하겠다고 발표했다.

원, 전남이 150만3천587건에 829억6천755만원이다.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법인 포함)는 광주가 15명, 전남이 22명이다.

광주시 동구에 사는 K씨는 최근 6년 동안 과속으로 차를 몰다 무려 425회나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혔다. 그때마다 최고 7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무시했다.

교육부, 광주 외고 허용할 듯

일부 광역시 신설 금지 예외 검토

교육인적자원부가 광주에 외국어고 신설을 허용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외고 신설을 전면 금지하되 현재 외고 없는 광역자치체 등 일부 지역은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문제가 외고의 자연계 과정 운영에 대한 조치 사항을 검토 중이나 현재 방침이 확정된 바 없으며, 관련 대책은 29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랑의 연탄 받으세요” - 추운 겨울을 앞두고 광주시 서구청 전주청 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주민자치위원 등 30여 명이 양 1동에서 소년소녀가장·독거 노인가정에 ‘사랑의 연탄’을 릴레이로 전달하고 있다.

전남도 공무원 비리 처벌 전국 최다

전남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직무와 관련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법무부가 국회 최병국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구속기소 94명, 불구속기소 126명, 벌금형 약식기소 41명 등 모두 261명이었다.

울산 3명 ▲대구 2명 ▲충북 1명 등의 분포를 보였다. 전남의 경우 121건의 비리가 접수돼 9명이 구속됐다. 불구속은 11명, 약식기소는 5명이었다.

‘노로바이러스’ 설사 환자 급증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주의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설사환자가 10월 들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4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설사환자 196명으로부터 채취한 가검물을 조사한 결과 22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 연구원이 시내 종합병원에 입원 또는 병원에 온 설사 환자를 대상으로 원인균을 검사해 파악한 결과로 7월 검출률 0.8%, 8월 1.5%, 지난달 4.0%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치이다.

▲노로바이러스(norovirus) =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그룹. 감염되면 메스꺼움·구토·설사·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때로는 두통·오한 및 근육통을 유발한다.

연구원은 가을철과 겨울철에 크게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의 특성상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및 설사 환자 증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요즘 잦은 안개 왜

큰 일교차로 대기중 수증기 증가

가을날씨가 계속되면서 ‘가을 안개’가 잦아지고 있다. 광주공항은 24일 시정거리(視程距離)가 200m까지 떨어지면서 오전 8시20분 서울발 KAL 1301 등 4편의 여객기가 결항했다.

먼서 ‘복사냉각’(輻射冷却·대기와 지표면이 냉각되는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흐린 날에는 지표면이 낮 동안 받은 복사열을 빼앗기지 않도록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지만, 맑은 날에는 열이 그대로 방출되면서 밤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

전남공고-첨단설비, 광주여성-디자인 특성화

광주시 교육청은 전남공업고를 첨단설비 산업 분야, 광주여성고를 디자인 산업 분야 특성화고로 지정·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비검사·전기디지털정보·생명정보화 공(工)·건설정보·건축디자인 등 5개 2학년씩 총 14개 학급 420명을 모집한다.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2008년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대회는 지금부터 전문학원에서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개강 11월 12일. 연회원특혜 50명 선착순 50% 할인. 국비무료. 문의 361-8111, 529-8111.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진원산맥-조종-허리디스크. 문의 10821531-3836, 531-0700, 523-4800, 011-9612-5530.

종가집설령탕. 확장이전. 2008년 10월 25일. 문의 062)374-0015.